



YTN, 3년 연속 흑자 행진... 두자리 수 성장 지속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디어 시장의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YTN은 두 자리 수의 매출 성장을 지속하면서 3년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 이같은 영업 호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잇따라 YTN 분석 보고서를 공표하고 우수 금융기관의 주식 매입도 늘어나는 등 증시에서 YT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지난해 세전 순이익 27.6억... 44.8% ↑

YTN이 2005년 영업 실적을 결산한 결과, 매출액은 2004년 보다 11.3% 늘어난 7백59억 7천만 원에 달했으며 법인세를 내기 전 순이익도 27억 6천만 원으로 4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세후 당기순이익은 법인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4년의 14억 4천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로써 YTN은 2002년 60억 원 적자에서 2003년에 20억 7천만 원 흑자로 전환된 이래 3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 갔다.

YTN의 이같은 영업 실적 호조는 광고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한 데다 YTN미디어 지분 매각으로 매매 차익이 발생한 데 힘입은 것이다. 한편, 방송 제작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용 통제가 안정적인 흑자 기조 정착을 위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YTN의 자산은 1천 63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YTN은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06년에도 전사적인 매출 확대 노력, 신규사업 추진, 비용 절감 캠페인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증시에서 YTN에 대한 관심 높아져

YTN이 양호한 실적을 지속함에 따라 증시에서 YT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일 국내외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부국증권이 YTN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하루 뒤인 1월 3일에 한화증권, 2월 10일에 프루덴셜증권이 YTN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3개 증권사는 보고서에서 '광고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시작' (부국증권), '새로운 매체 등장은 매출 증가의 기회' (한화증권), '반전의 시작' (프루덴셜증권)이라는 제목아래 향후 YTN의 실적을 낙관하는 분석내용을 실었다. 특히 프루덴셜증권은 주당 4,500원을, 부국증권은 5,200원을 '주가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주가 목표치'는 분석 대상 기업의 적정 주가 수준을 의미한다.



증권사들은 YTN 주가 전망을 밝게 보는 근거로 ▲ 방송 광고 매출의 고성장 전망 ▲ DMB 등 신규사업 추진 ▲ IP TV, HSDPA, 와이브로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따른 매출 증가 예상 ▲ 서울타워 등 안정적인 고수익 사업 유지를 들었다. YTN의 2006년 수익 전망과 관련, 프루덴셜 증권은 매출액 909억 원, 당기순이익 56억 원을, 부국증권은 매출액 868억 원, 순이익 68억 원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 금융기관, YTN 주식 매입 잇따라

금융기관들의 YTN 주식매입도 잇따르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주주명부를 마감한 결과 미래에셋자산

운용, 새마을금고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연금투자가 지분율 기준으로 20대 주주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에셋은 2월 28일에 YTN 주식 5.27%를 보유하고 있다고 증시에 공시했다. 금융기관의 연이은 YTN 주식 매입은 YTN 영업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YTN으로서는 기관투자가 층이 두터워져 안정적인 주주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문기자제 도입 확정 4월 인사에 반영

YTN은 전문기자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이달 안으로 선발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정기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YTN은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를 담당할 역량 있는 기자를 내부에서 선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 초 노사 공동 T/F를 구성했으며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7일 전문기자제도 운영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문기자제도에 따라 취재 경력 10년 이상, 전문영역 출입 2년 이상인 기자는 임기 2년의 전문기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자 선발을 위해 상무를 위원장으로, 보도국장, CQ, 전문영역 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보도국 부서장들의 의견을 감안해 선발분야를 결정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40%), 인사평가 결과(40%), 해당 부서원들의 평가(20%)를 토대로 매년 전문기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 전문기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기자는 임기 중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으며 전문기자 경력이 있는 기자가 보직을 맡게 되면 향후 전문기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도 운영규칙에 포함됐다. 전문기자로 선발되면 자율적인 취재 활동을 보장받되 우선적으로 소속 부서장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교육 및 해외 연수 시 우대를 받고 일정 수준의 전문기자 수당과 취재비가 지급된다.

3월호 목차

- 121 ▶ 보도국장 인터뷰 - 커뮤니케이션을 화두로 삼겠습니다
- 141 ▶ 뉴스 퍼레이드 - 최고의 신선도, 방송에 힘이 넘친다
- 161 ▶ 단신/사우동정
- 131 ▶ 특파원보고서 - 마음 바쁜 베이징 특파원
- 151 ▶ 밴쿠버 리porter - 글로벌리즘 혹은 내셔널리즘
- 171 ▶ 제10회 대학생영상공모전 - DMB, 탄생 축복의 유예
- ▶ DMB 앵커 - 주조정실에 나와 있습니다
- ▶ 박형일의 디지털 칼럼 <1> - 디지털 TV
- 181 ▶ 망언가의 실제/독일월드컵, 기대해도 되나요

진상옥 보도국장에게 듣는다

“‘커뮤니케이션’을 화두로 삼겠습니다”

정종석 기협 YTN 지회장이 진상옥 보도국장을 만나 보도국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때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정됐다고 봅니다. 지난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이제 제자리에서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며 YTN의 위상에 걸맞는 뉴스를 만드는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줄기 세포’ 보도를 계기로 윤리강령과 프로그램 제작 준칙을 점검해 기자로서의 자세를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분위기를 쇠신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인사일 것 같습니다. 보도국 인사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정기 인사는 봄, 가을 편성개편에 맞춰서 해 왔지 않습니까. 폭은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CI(CONTENT INNOVATION)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고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인사 폭은 CI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고요.

- 매번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인사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원칙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제 10년이 넘는 조직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기회균등으로 내외근 순환을 한다거나 하는 관행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부서에서의 필요성을 중시할 것입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적재적소 배치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문기자제도가 도입됩니다. 인사 평가제가 정착되면 중요한 인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소속 부서장의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의 결과와 소속 부서에서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인사 척도가 되고, 이외의 인사 요인은 배제될 것입니다.

- 일부에서는 현 보도국 편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취재와 기사처리과정에서 부서간 협조와 조율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 기자와의 대화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부서간 의사 소통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현안이고, 지금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Q가 취재부서와 뉴스팀 간의 의사 소통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각 뉴스팀장들도 편집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보도국 게시판도 신설했습니다. 서로 알려 주고, 가르쳐 주고, 조언해 주고, 지적해 주고, 도와 주고,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제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자리잡고 있고 만약 조직 변화가 있



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이나 기자 개개인도 서로 간의 벽을 깨는데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라크 전쟁 특보 방송 때 국제부에만 30명의 기자가 파견됐습니다. 모든 부서를 막론하고 한 이슈에 매달린 게 3주간의 특보 체제를 끌고 간 동력이었습니다.

- 전문기자 제도 도입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기자제 정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문기자제는 우선 자격요건, 선발방식, 평가 등에 관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요. TF팀이 이런 항목을 담은 운영규칙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조직 내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뽑는 것,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전문기자 일을 맡아야겠지요. 선발된 기자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각오로 노력해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려야지요. 다음 인사 때 적용할 것이고 선발 과정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 현행 전문기자제도는 명확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 본인이나 부서원들의 입장이 곤혹스럽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선배들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은 세월이 가면 나이 든 경력이자 쌓이기 마련이죠. 세대교체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젊은 후배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닥치지 않겠습니까. 취재부서에 배치돼 있는 전문기자는 새 전문기자제도 도입에 따라 대체될 것입니다. 선배들에게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know-how)가 발휘될 수 있는 분야에서 몇몇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현업을 꺼리면서 편하게 지내려는 생각만 안 한다면 조직은 누구라도 포용해야겠죠.

- 콘텐츠 혁신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이슈 중심의 현 개혁방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콘텐츠 혁신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변화는 뉴스팀의 주도로 이뤄진 측면이 강합니다. 취재부서로 부서의 혁신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기사를 이슈화하고 입체적으로 의견을 넓히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어떤 이슈거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기사로 사회적인 어젠다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가 설정한 양극화 해소 문제를 놓고 심층보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뉴스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정착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특히 부장이나 팀장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영상취재부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장비 분야는 디지털 전환과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디지털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니 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인력 문제는 일의 효율화에서 찾겠습니다. 그것은 CI 추진과 관련돼 있습니다. 제작량을 인력과 장비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지역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국 여건 개선과 취재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지국 여건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월 초에 지국장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상화면 송출방식은 곧 개선될 것입니다. 취재망도 보강될 것입니다. 일부 SO와는 이미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SO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 받는 상호관계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 내에 이것만은 이루겠다는 역점을 두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게 제가 제일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콘텐츠 혁신을 진전시키는 일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꾸준히 찾겠습니다. 화면 전송 수단의 확충, 나아가서 생중계 시스템 구축도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 후배 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는 지금 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물 불 안가고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YTN은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때 보여줬던 열정이 얼마만큼이라도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건에서나마 최선을 다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특파원보고서 ①- 베이징

마음 바쁜 베이징 특파원들 .. 취재 섭외 고충 커



중국 베이징에는 우리나라 18개 언론사에서 27명의 특파원이 나와 있다. 중국내 특파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필자가 부임한 뒤 약 2년 동안 베이징만 6명이 늘었다. 상하이특파원도 증가하고 머잖아 선양에도 특파원이 파견될 가능

성이 높다. 그만큼 중국 뉴스가 한국에 주는 의미와 파급력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특파원들은 언론 자유도가 높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중국의 취재 환경 때문에 고전한다. 언어와 관행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충은 취재원 섭외이다. 방송 인터뷰를 위해 베이징의 당국자나 지방 정부, 관련 단체 등에 연락을 할 경우 심중팔구 두터운 장벽을 만나게 된다.

YTN이 어떤 매체인지에서부터 취재를 하는 목적과 용건, 기사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꼬치꼬치 물어본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전화로만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대개는 공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팩스로 보내줘야 겨우 접수가 된다. 그러나 몇시간 안에 즉각 대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날그날 리포트 아이템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 통상 2~3일 지나야 겨우 연락이 오는데 그것도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이런 저런 정중한 핑계를 대지만 허탈할 뿐이다.

심지어 홍보에 가까운 내용인데도 좀처럼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 어쨌든 인터뷰가 꼭 필요한 방송 특파원들은 늘 몇 건의 섭외를 동시에 진행중이다. 그리고 적합한 인터뷰를 딸 수 있는 회견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도 알아본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중국 TV 화면을 녹화해 뒀다가 쓰기도 한다.

관계 부처나 지방 정부가 스스로 기획해 언론사를 초청한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취재가 용이하다. 홍보 성격이 짙어 기사가 약할 때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인터뷰 섭외에 드는 힘도 덜고 여러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 특히 방송사에게는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난해 9월 광둥성 광저우, 중산의 가짜 양주 단속과 지난 2월 광시 류저우, 구이린의

독립운동 유적 복원 관련 출장은 유익한 취재가 됐다. 다만 중국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특파원들이 취재하고자 하는 것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개혁개방의 여파로 중국의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언론 자유는 아직 미흡하게 느껴진다. 2008년 올림픽이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이다. 지난 2년간 특파원 생활을 되돌아 보면 속도는 더디지만 취재 여건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각양각색의 소식과 정보들이 기자회견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취재원들과의 접근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 지국 사무실이 생긴 뒤 본사의 인지도도 높아졌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카이 위성을 통해 중국 각지의 YTN 시청자가 많아졌다. 주중 베이징 대사관은 물론 한국인이 많이 가는 장소에는 늘 YTN이 켜져 있다.

베이징을 떠나서도 중국 각지에서 만나는 취재원들이 방송 잘 보고 있다는 덕담을 해 주곤 한다. 중국의 연중 양대 행사인 인민정치 협상회의와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열리는 요즘도 취재원 접촉과 섭외는 만만치 않다. 타사 특파원들과의 경쟁과 중국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은 늘 분주하고 시간은 빠르다.

김태현 베이징 특파원

나도 YTN 가족

“저는 지금 DMB 주조정실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 12월 1일 YTN DMB의 개시를 알리는 첫 방송!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전날 집에서 100분은 넘게 연습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내기 앵커 이주선입니다. 일일이 찾

아뵐고 인사를 드려야하는데 아직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아 죄송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YTN DMB 앵커로 11월에 입사해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새내기 앵커라고 소개를 했지만 새내기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죠? 사실 저는 YTN DMB에 오기 전에 부산방송(PSB)에서 3년간 아나운서로 있었답니다. 3년 동안 많이 배우고 다양한 방송을 해봤습니다.

용두산에서 한해를 마감하는 해님이 방송을 하고 방송국으로 돌아와 새해를 맞이하는 생방송을 하느라 밤을 꼬박 새며 방송 속에 맞은 새해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무대로 수만 명 앞에 섰는데 그만 비가 갑자기 쏟아져 비를 주룩주룩 맞으며 쇼 진행도 해봤고요.

태풍 매미가 경남지역을 강타했을 때 정신없이 피해 현장에 가서 원고도 없이 전국 생방송을 했습니다. 때론 기자였다 때론 MC였다 때론 앵커였다 이렇게 방송에 파묻혀 정신없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란 시간, 좋은 경험으로 가득 채웠기에 아직도 YTN 뉴스에 부산소식이 나오면 눈길 한번 더 가고 옛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YTN DMB에 온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YTN DMB 시작을 위해 D-7일 이렇게 크게 써 붙여놓고 거의 매일 밤샘하듯이 최선을 다했던 YTN DMB 식구들의 정열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YTN에

처음 갔던 날, 20층의 분위기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정신없이 들리는 PD콜,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정말 생방송 뉴스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YTN DMB에서 오전 뉴스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뉴스의 현장에서 보도국 단신과 뉴스룸에서 코너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DMB와 YTN을 오가며 두 곳의 분위기를 모두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DMB의 첫 출발을 알리는 방송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DMB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에 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오순도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하나씩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 항상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YTN 뉴스의 현장감에 함유한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배들께서 모니터링 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또 항상 공부하는 앵커가 돼야 한다고 채찍질도 해주십니다. 제가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선배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YTN에 온 지 3개월, 워낙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인지 돌이켜보니, 꼭 3년같은 3개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제 색깔은 어떤 색깔까요? 앞으로 3개월 후 그리고 1년, 3년 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나운서의 색깔을 벗고 진정한 앵커의 색깔을 띠고 싶습니다.

이주선 YTN DMB 앵커

프로그램탐방 - 뉴스퍼레이드

최고의 신선도, 방송에 힘이 넘친다

에피소드 1

오전 10시 58분 / 1부조

“전CM 인 - 스타트”

“자 방송 2분 전입니다. 헤드라인 모두 5개입니다. 그림 다 왔지요?”

“헤드라인 그림은 모두 있는데, 1번부터 4번 기사까지 밑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선배, 아직 전화 하나도 안 왔어요”

“허-----걱!”

거의 매일 되풀이되는 뉴스퍼레이드의 단상이다.

뉴스 퍼레이드는 하루 뉴스의 시작이다

콘텐츠 혁신의 핵심인 이른바 '2+1'의 시작은 굿모닝 코리아가 말지만 당일 발생하는 주요 뉴스는 사실상 '뉴스퍼레이드'에서 시작된다.

각 출입처에서 주요 자료를 발표하거나 브리핑 하는 시점이 통상 오전 10시 전후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대략 짧게는 10~20분 길게는 30~40분 정도 걸린다.

뉴스퍼레이드는 거칠고 투박하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퍼레이드 1부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팀에 방송 참여 연락하라, 영상편집팀에 그림 부탁하라, 듣고 적었던 내용을 기사로 다듬고 문발 넣어서 출고하라, 취재기자들 눈코 뜰 새 없다.

당연히 기사도 거칠고 세련미도 떨어진다. 하지만 신선도는 최고다. 방송에 힘이 넘친다. 그래서 취재부서도 미리 준비해 놓은 기획기사를 이 시간대에 쏟아 붓고 방송되기를 희망한다.

뉴스 퍼레이드는 간결하다

콩북아 먹듯이 뉴스를 생산하다 보니 '말랑말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새끼 파일이나 여러 브릿지 타이틀, 이슈추적 제작 등 각종 기교는 거의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어깨걸이는 '이슈'와 '일반 뉴스' 딱 두 가지다. 대신 현란하지는 않다.

간결하면서 눈에 쏙 들어오는 '일목요연'이 뉴스 퍼레이드의 콘셉트다.



딱 한 가지 예외는 있다

글자가 하나씩 박혀 들어가는 이른바 '화투 이펙트'다.(그래픽 팀은 전 세계적으로 범 우주적으로 처음 시도된다며 펌프질을 해 대지만 웬지 믿고 싶다)

앵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는 일부의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당당히 뉴스퍼레이드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다

뉴스퍼레이드는 '원맨쇼'다

무려 2시간 동안 뉴스가 쏟아 지지만 한 명의 앵커가 거의 도맡아 한다. 편성개편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그래서 뉴스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다.

강약과 완급을 적당히 조절하는 김영수 앵커의 순발력과 애드리브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콘텐츠 혁신 뒤 두 달 동안은 그랬다. 그러나...

에피소드 2

오전 9시 / 편집회의 후

“윤종수 선배, 오늘 아이템 뭐예요?”

“국회 모듬 하나, 줄기세포 속보 2개다.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야지”

완만하게나마 올라가던 시청률은 지지부진... 아랫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용틀임을 해낸다. 어수선했던 보도국에 편성 개편 초반의 파이팅은 좀처럼 투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습은 무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최근 들어 희망의 기운이 느껴진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기동취재부의 어린 후배들이 힘 있는 기획물을 내놓고, 전문기자들이 중량감 있는 시리즈물을 내놓고 각 부서에서도 뉴스에 참여하려고 자진 납세하는 전화가 줄을 잇는다. 주춤하던 시청률도 윗쪽으로 꿈틀대고 있다.

희망을 주는 새 봄이 온다. 그래서 분발하고 싶다. 그 선봉에 뉴스퍼레이드가 있다.

[팀장] 윤종수 : 뉴스 퍼레이드는 뉴스 3팀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보도국의



뉴스퍼레이드 앵커 김영수

콘텐츠가 먼저지만 기술국을 비롯한 회사역량의 지원과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김영수 : 매일 조금 더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파이팅 !!! ^^

[PD]

김진호 : 뉴스다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김호준 : 가장 순발력 있는 뉴스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오승엽 : 대한민국 뉴스를 주도하는 퍼레이드, YTN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기술스텝]

이기주 : 방송사고가 뭘지 절대 안 보여 드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문정훈 : 하루의 중심, 뉴스의 중심, 뉴스퍼레이드 파이팅...

정원태 : 점심 전의 배고픔도, 점심 후의 나른함도 모두 날려버리겠습니다.

김한수 : 차별화 된 뉴스, 심도 있는 뉴스를 원한다면 퍼레이드를 추천합니다.

[AD]

강윤희 : 힘찬 뉴스퍼레이드 아자! 아자!

김은진 : 따뜻한 사람들이 만드는 뉴스퍼레이드 파이팅!

오승엽 (뉴스 3팀)

세계속의 YTN - 해외리porter에게 듣는다 ⑩

글로벌리즘 혹은 내셔널리즘?



프롤로그

내가 밴쿠버에 첫 발을 들인 것은 2001년 8월, 밴쿠버 최고의 날씨를 자랑하는 한 여름철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전체적으로 추운 나라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밴쿠버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오르내리던 때 밴쿠버에 온 것이다. 이곳에서 벌써 4년이 넘도록 살고 있다. 진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나고 묻는다면? 글세요...한국 말로는 다른 데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하하

정되었다는 기사가 오르내리던 때 밴쿠버에 온 것이다. 이곳에서 벌써 4년이 넘도록 살고 있다. 진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나고 묻는다면? 글세요...한국 말로는 다른 데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하하

글로벌 코리아

캐나다 지역의 소식을 한국 땅에 전하고 있는 리포터로 일해온 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다. 밴쿠버 한인

방송에서 구성작가로 일하고 있는 나에게, 동포소식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처음에는 내가 만들고 있는 밴쿠버 지역 방송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했다.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YTN 연수를 계기로 박차를 가해 기사를 쓰게 되었다. 이걸 YTN으로부터 제공받은 왕복 비행기표와 체재비 일체에 대한 일종의 채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YTN의 해외리porter 초청교육은 앞으로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하

글로벌리즘?

그래서 밴쿠버로 돌아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기사송부를 위해 최선을 가까운 노력을 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시리즈 박이라는 애칭을 가진 피디와 나누는 전화 통화로 주말 저녁을 마감한다. 이메일로 주고 받았던 기사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하~ 이게 내가 몸으로 느끼는 글로벌리즘이구나...하면서 무릎을 치게 된 것이다.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 같은 경우, 다국적 기업-맥도날드나 코카콜라 등-이 세계 곳곳에서 판을 치는, 혹은 FTA로 인해 약소국가가 피해를 입는 등, 세계화에 대

한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지금 난, 내 몸이 글로벌리즘의 전형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태평양 건너 한국에 보낸 내 이메일에 대해 채 2초도 걸리지 않아 답메일이 뜰 때,, 또 얼마 전 한국계 미국 프로 풋볼 선수 하인즈 워드와 관련, 이곳 동포들의 반응을 보낸 기사가 만나질 만에 한국 땅에서 전파를 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난 전율한다. 나는 내 몸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빅브라더 같은 매체를 통해서 말이다.

글로벌리즘 혹은 내셔널리즘?

YTN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코리아>은 글로벌리즘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한국 동포의 세계에서의 활약상이라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 언제나 바람직한 의미의 '글로벌 코리아'이 될 것인가... 누가 누구를 통치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개인이나 민족을 존중하는 그런 글로벌 코리아 말이다.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일에 작은 부분이나마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어떤 '형태'에 간하지 않은 기사를 발굴해 보려고 오늘도 머리를 굴려본다.

이은경 캐나다 밴쿠버 리포터



박형일의 디지털 칼럼 <1>

디지털 TV

NTSC 아날로그TV가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진행됐다. 또 TV 수상의 대형화 및 고화질의 욕구로 HDTV(High Definition TV)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HDTV를 훨씬 능가하는 UDTV(Ultra Definition TV)와 고화질의 Digital 시네마 기술연구도 이미 진행 중이다.

아날로그 케이블TV가 10년 만에 디지털 케이블TV로 발전했고, 백여 개의 채널이 이미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으며, 지상파 DTV는 SDTV(Standard Definition TV)를 건너뛰어 HDTV로 직행하고 있다.

■ 디지털 TV란?

우선 디지털TV란 무엇이고 어떻게 보여지는 것일까? 디지털TV는 현재의 NTSC 아날로그TV와 다른 별도의 디지털주파수대역으로 전송된다. 디지털TV는 영상을 MPEG-2 포맷으로 영상압축을 하고, 케이블/지상파/위성을 통해 디지털 전송된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압축기술과 전송기술에 의해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

첫째, 아날로그TV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화면 겹침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신호 오류를 자동으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질과 음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방송서비스의 고품질화, 고음질화를 제공한다.

둘째, 다른 통신미디어와 접속·연계되어 데이터방송과 VOD 등의 쌍방향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셋째, 수백 개의 다채널서비스가 가능하다.

■ SDTV와 HDTV의 차이점

대표적인 디지털 TV의 SDTV, HDTV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SDTV (표준형 TV)	구분	HDTV (고화질 TV)
40만 화소급	화소수	200만 화소급
720 x 480i (480라인의 2중주사방식)	주사방식	1920 x 1080i (480라인의 2중주사방식)
4:3, 16:9	화면비	16:9 와이드 화면
아날로그 TV와 유사한 화질이나 잡음이 없어 선명함	화질	아날로그TV에 비해 4~5배의 화질(35mm 영화급)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채널 서비스에 적합	주요 서비스	영화급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지향

디지털TV의 HD와 SD의 화질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HDTV와 SDTV의 수치적인 차이는 따지지 않고 볼 때, 원래 영상 소스의 화질이 우수하고 제작상의 화질연하가 없다면 SD급도 훌륭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HDTV로 시청을 해보면 HD급 방송과 일반 방송간의 화질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DTV 방송 발전 속도와 지상파TV의 영향력을 볼 때, DTV는 곧 HDTV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HD가 영상서비스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디지털화 어디까지?

디지털TV의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 질

수도 있지만- 지상파는 2010년까지 모든 방송을 HDTV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케이블TV의 SO는 작년에 백여개의 다채널 SDTV서비스를 시작했다. 참고로, 현재 시청자가 D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케이블TV를 보고 있었다면 지상파 HDTV와 아날로그 케이블TV를 볼 수가 있고, 디지털 케이블TV를 가입했다면 지상파 HDTV와 Digital & Analog 케이블TV를 모두 볼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돌려서 뉴스 제작부문의 디지털화 진행 현황을 본다면, 지상파의 뉴스는 스튜디오 카메라만 HD이고, ENG는 16:9 SD급으로 향후 몇 년간 혼합사용 될 것 같다.(취재영상 및 자료영상은 SD영상을 HD로 변환하여 방송되는 형태를 취함-무늬만 HD). 그리고 YTN이 뉴스제작을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디지털 송출의 문제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동시 사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DMB, IPTV, Wibro, HSDPA 등의 새로운 매체들이 급성장하고 있어 생산된 뉴스는 빠르게 새롭게 제작되고, 편성되어 다양한 경로로 재생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YTN 선배들에게 몇가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1) 급변하는 방송-통신의 융합환경과 HDTV 방송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 2) YTN이 HD뉴스를 한다면, HD뉴스를 통해 시청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 3) 디지털기술과 HDTV 기술이 완성된다면, 더 이상의 기술적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 다음번에는 급변하는 뉴미디어의 환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형일 디지털기획팀/정보통신기술사

단신

한원상 기자, 한국기자상 수상



한원상 기자가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의 망언 배경을 폭로했던 '망언가의 실체-아소탄광, 한국인 희생자 6명 확인' 보도로 제37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분을 수상했다.

한원상 기자는 '망언가의 실체' 보도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잇단 망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소 일본 외상이 '아소탄광'과 '아소시멘트' 등을 물려받았으며 이들 기업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연행된 조선인들이 노역을 하다 희생됐고 유골이 부근 사찰에 보관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한국기자상은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보도물 중 최고의 보도물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한다. 시상식은 2월 22일 오후 1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문세·오유철 기자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



이문세(오른쪽)·오유철 기자가 '민물고기의 낙원, DMZ'로 제6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보도기획 부문상을 수상했다.

'민물고기의 낙원, DMZ'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HDTV 촬영 다큐멘터리로 돌고기와 꺾지의 산란 과정 가운데 한 쌍이 산란하는 순간 다른 물고기가 끼어들어 같이 산란을 하는 이른바 스니커 행동을 처음으로 취재했다. 시상식은 1월 21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열렸다.

카메라기자상은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TV카메라 기자에게 사기진작과 보도영상의 발전을 위해 제정했다.

뉴스 2팀, 한글사랑 감사패 받아

편집 2팀이 2월 21일 한글문화연대가 주는 한글사랑 감사패를 받았다. 편집 2팀은 뉴스 프로그램 제목을 한글 표현인 '오늘'로 짓는 등 한글 사랑의 뜻을 널리



퍼뜨리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글문화연대는 외국 말글의 홍수 속에서 독창적인 한글 문화를 일구기 위해 학술, 방송, 출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최신 정보통신과 방송기술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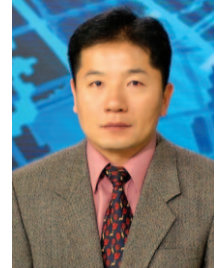
YTN방송기술인협회는 2월 13일부터 4일간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과 방송 기술에 관한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의 주요내용은 인터넷과 근거리 네트워크 기초(이모연), 고속 디지털 통신 및 차세대 네트워크(오규태), 방송

음향론(신창섭), 디지털 영상 신호의 이해(우주형) 등이다.

방송기술인협회는 방송기술의 기초와 응용 분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7대 한국기자협회 YTN지회 출범



제7대 한국기자협회 YTN 지회장에 스포츠부 정종석 기자가 선임됐다.

정종석 신임 지회장은 "황우석 파동으로 가라앉은

보도국의 분위기를 일신해 신바람나는 일터가 되도록 선후배와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취재윤리 강화와 회원권의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또 대외적으로는 "회원사로서 기자회견내 YTN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 7대 YTN지회의 집행부는 지회장 정종석, 부회장 함형건, 여성위원 심정숙, 총무 오승엽, 보도자유분과위원 이경아, 권익옹호분과위원 김정환, 전문성 제고 TF팀장 조승호 전임 지회장으로 구성됐다.

사우동정

자이툰 부대에 영상물과 책자 전달



왼쪽부터 이창호 상병, 김재동 부장, 김영삼 대위, 김영주 대위

증받은 것이다. 영상물 중에는 YTN이 직접 제작하고 방송한 사이언스+, 새 천년을 꿈꾸는 땅-몽골, 독도 시리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동 부장(방송심의실)은 자이툰 부대에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을 위해 2월 23일 비디오 Tape과 책자 등을 전달했다.

김부장이 전달한 물건은 DVD와 비디오 Tape 44개와 책자 181권 등으로 사내외 지인들로부터 기

이귀영 문화부장, '미국의 아침을 여는 여성 앵커들' 발간



이귀영 문화부장은 미국의 유명 여성앵커들의 이야기를 쓴 책 '미국의 아침을 여는 여성 앵커들'을 발간했다.

이귀영 부장은 197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방송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을 연 이들 여성앵커들의 노력을 이 책을 통해 알리는데 노력했다.

이 책에서는 NBC '투데이쇼'의 첫 여성앵커 바버라 월터스, 현재 메인 앵커를 맡고있는 케이티 커릭, ABC '굿모닝 아메리카'의 다이앤 쇼어, NBC·CNN에서 첫 아시아 아메리칸 여성 앵커로 명성을 날린 코니 정, CNN '인사이드 폴리틱스' 앵커인 주디 우드러프 등 미국 아침을 주름잡는 여성 앵커 5명의 성공기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다.

한정호 기자, '알파벳 VS 과학'과 'NEWS, 알파벳을 만나다' 발간



한정호 기자(편집운영팀)가 '21세기 신조어'라 불리는 영어 약어(略語)들을 테마별로 분류한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매일매일 붓물 터

지듯 쏟아져 나오는 영어 약어들이 뉴스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정호 기자는 인터넷과 IT기술 등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신속 정확한 의미전달 수단으로서 약어의 활용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약어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영어 약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책은 과학편(알파벳 VS 과학)과 상식편(NEWS, 알파벳을 만나다)으로 구성돼 있다.

김관상 미디어국장, '자랑스런 성균언론인상' 수상



김관상 국장이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성언회에서 '자랑스런 성균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월 6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06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과 함께 열렸다.

류희림 편성운영팀장 관훈클럽 임원 선임



류희림 편성운영팀장이 중견 언론인들의 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인 관훈클럽 임원으로 선임됐다. 류희림 팀장은 앞으로 1년동안 관훈클럽임원으로서 관훈토론회 주관과 관훈 저널 발간 그리고 관훈언론상심사와 해외 연수기자 선발 등 관훈클럽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제10회 대학생영상공모전 수상기

DMB, 탄생 축복의 유예(猶豫)



왼쪽부터 김상윤, 윤영호, 박상진, 박근일

출품한 직후 친구 놈에게 전화가 왔다.
 “그래 그 공모전 일은 잘 됐고?”
 “뭐 대강 그러저럭 마무리했지 뭐.”
 “히야... 수고했다. 감개무량하겠네. 뿌듯하겠다. 야.”
 “뭐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야~ 그래도 우리들 애 하나 낳아 놓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어.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 빠근해지는 건 사실 아니더냐.”
 “푸하하 그건 그렇지.”

생각해보니 이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이미 내가 얻은 것은 참 많았다. 동참의사를 밝힌 날 홈페이지에 적어놓았던 한마디는 ‘역시 이런 게 제일 재미있어’였다. 그 이후 다가올 즐거운 추억 만들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근일이가 방송국 회의 중간에 나를 불러낸 뒤 영입 조건으로 사줬던 중국집 A Set. 중간 단합대회를 빌미로 출장 비싼 것들만 먹느라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했던 초반. 이 때문에 과외비를 몇 일 만에 탕진한 사연. 밤샘 작업 도중 간식대기를 한다며 후배 놈들과 게임 진 검승부를 벌였던 그 왁자지껄한 순간. CG작업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후 뭐가 더 나은지 옥신각신 했던 일들.

앞으로는 한동안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기 힘들겠지. 어쨌든 이렇게 산고(?)의 고통을 다시 한 번 겪었고 나를 진장한 한 녀석을 출산했다. 이 희열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후후...

- 1월 13일. 출품 직후의 영호 -

학교 방송국에서 일했던 우리에게 10분 영상을 만드

는 일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만 보았던 것이 취재를 하면서 DMB에 대해 알아 갈수록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미궁 속으로 들어간 우리에게는 그래도 인복은 있었던 것 같았다. 새로이 팀에 합류한 영호형은 기획내용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프로그램의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최고의 어나운싱을 해주었던 일후형.. 그리고 여러모로 도움을 준 후배님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DMB, 탄생 축복의 유예’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군에서 제대하고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밤새 무언가를 찾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도 큰 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된 것 같다.

이제 복학하는 나에게 또 한 번 이번 기회가 온다면 학교 성적 때문에 한번 망설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팀원과 같이 라면 언제든지 ‘고~’이다.

- 상진 -

‘뭐, 재미있게 할 만한 거 없나?’, ‘한번 치열하게 뭔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에게 열정이란 게 남아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고...’, ‘어라? 영상공모전이라... 이거 어때?’

제대하고 나서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생각들이다. 막상 제대하고 도서관에 출퇴근하며 하루 종일 영어 공부, 전공공부하며 흔히 말하는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뭔가 부족한 허전함은 우리들의 마음속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다. 대학생활 9할을 학과공부보다는 방송국생활을 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서로에게 어색하기만 했나보다. 그런 상황에서 제 10회 YTN영상공모전은 우리에게 예전의 익숙함과 새로운 자극제를 주었다.

이번 YTN 영상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또 다른 감흥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조마조마하며 다가갔던 두려움, 섭외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막상 인터뷰를 했는데, 예상된 답변이 안 나왔을 때의 아쉬움 등. 취재하면서 예전 고대방송국 현 국원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을 다시 느꼈고, 합숙소를 부라부라 차리면서 일주일동안 밤을 지새우며 나눴던 진솔한(?) 이야

기들과 게임에서 이겨서 간식비를 아끼려고 아우성치며 용을 쓰던 모습들. 머리에서 구상은 되는데 막상 해보면 되지 않는 안타까움. 그런 예전의 모습에서 익숙함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고 행복했었다.

- 상윤 -

16일 오전 11시 생각지 못한 전화를 받았다. 아니 어찌면 그토록 바래왔던 전화일지도 모르겠다.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 방송국을 기웃거리면서 후배들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다시금 그 안에 속하고 싶어서 일지도 모른다. 왜 그리 힘들어 하고, 아파하고 싫증을 냈을까? 조금 더 제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들... 하지만 이미 나는 현역 군원이 아닌 선배로서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상윤이가 “형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짙은 열망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중간에 들어와 많은 도움을 준 영호. 고마워하는 우리에게 “나 너희 취재 일정보고 들어왔어”라며 씩씩 웃던 영호의 모습. 하숙집을 작업실로 만들고, 하숙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리의 물음에 “웁기면 되죠. 뭐!”라고 응수하던 상진의 모습. 처음에 불면증에 힘들어 하던 나를 질책하다가 스스로 슬럼프에 빠지고는 “형 조금만 기다려. FEEL이 안와서 그래. FEEL만 받으면 끝이야~” 외치던 상윤이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다. 물론 지금은 수상을 알고 글을 쓰지만, 작품을 완성하고 YTN에 제출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으로 족하다’였다. 열심히 만들었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수상까지 하게 됐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또 다시 좋은 추억거리를 안겨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 근일 -

시 상	수 상 자	작 품 명
최우수상	박근일, 박상진, 윤영호, 김상윤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KUBS)	DMB, 탄생 축복의 유예(猶豫)
우 수 상	이주영, 한효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빛의 속도로 다가오다, 지상파 DMB
	한기람, 조아라 이화여자대학교 이하영 서울시립대학교	아름다운 한글을 위하여
장 령 상	김영길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과	문화강국 Korea, 세계에 서다
	유지성, 소만정, 이기현, 채유준, 김미나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	한류 열풍, 냉기로 맞서다
	김준영, 김기현, 이영래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글, 이제 너를 그린다
	박경민, 한산하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절치탁마 훈민정음 (切齒琢磨 訓民正音)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

YTN과 경기도가 주최한 제 10회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이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4일 YTN타워에서 열렸다. YTN은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들을 ‘시청자의 눈’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방영할 예정이다.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은 우수한 영상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창조적인 방송영상의 발전을 위해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다.

게 시 판

- 입 사
최태선 마케팅기획부, 이성근 마케팅2부 2.10
- 전 보
신상옥 보도국장 1.16 / 김백 뉴스총괄단 CQ1, 김흥규 기동취재부장, 김원배 차장 기동취재부, 권준기 국제부 1.17 / 임수근 선거방송팀장, 황보선 뉴스2팀 1.25 / 홍상표 부국장 보도국 해설위원, 홍혜주 마케팅기획부 2.10 / 지민근 기획팀 3.1 / 김진우 선거방송팀 파견 2.28
- 부 음
신정옥 국제부 부친상 1.23 / 김신영 편성운영팀 모친상 3.8

YTN DMB

- 입 사
김 윤 1.2

한국기자상 수상기

“망언家の 실체”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는 것은 기자로서 영광이다. 이번 기자상은 5년 전에 '경찰, 롯데 호텔 노조원 폭력진압'에 이어 두 번

째 받는 상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난해 한국, 중국, 일본은 영토 분쟁과 역사 왜곡으로 시끄러웠다. 그것은 일본의 우경화와 정치인들의 망언이 잇따르면서 아시아 국가의 반발로 외교마찰까지 이어졌다.

역사란 무엇인가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다. 빌리브란트 전 독일 총리는 "과거를 잊는 자는 영혼이 병든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의 아소다로 외상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성과 화해가 필요한 시점에 외교수장으로서 역사인식과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고 거침없이 막말을 하고 있어 외교적 갈등만 계속 초래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아소家は 일본의 전형적인 우익이다. 아소다로 외상의 증조부 아소 타키치는 일본의 중의원을 역임했고, 부친인 아소 타가키치는 아소광업의 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아소타로 외상조부는 요시다 시게루 일본 전 총리이다.

일제강점기 때 아소광업의 창업자인 아소타키치(麻生太吉, 1933년 사망)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연행자를 노역시킨 아소가키치(麻生 賀吉, 1980년 사망)의 가업을 이어온 아소외상은 아소시멘트 회사의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소다로가 외상으로 있는 한, 일본정부는 '한·일 유골조사협의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소광업에서 조선인 희생자가 얼마나 사망했는지 알기 위해서 6일 간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개인장비를 들고 일본에 갔다. 휴가를 낸 것은 혹시나 성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소광업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골은 방치되어 있었다. 명부는 있어도 유골이 없거나, 아니면 유골이 있어도 주소가 없어 먼 이국땅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 아소家は 이것만이 아니었다. 국내에서 산림을 훼손했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일제 때 아소광업의 전신인 아소상점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안면도를 매수해서 벌채와 송진을 채취하고 이것을 군수품과 갱목에 사용했다. 또 안면도를 '아소 가(家)의 왕국건설'을 목표로 한 곳 이었다는 사실과 여기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자를 직접 찾아 아소家の 실체를 드러내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있는 아소외상, 총리 경선을 위해 당내 우파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외교적 물의를 빚을 발언들을 거침없이 계속 쏟아낸다면 마치 앞을 보지 않고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게 보인다. 역사를 새롭게 찾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이번 한국기자상은 역사를 새롭게 밝히는데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원상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축구대표팀 전지훈련 취재기

독일월드컵, 기대해도 되나요?



이호, 정조국 선수와 함께

1월 15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축구대표팀 전지훈련을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홍콩으로 이어지는 19일 동안의 긴 여정이었죠. 대표팀은 다시 미국과 시리아를 거쳐 지난 24일야아 귀국했으니 비할 바는 못되지만요. 출발부터 선수들 얼굴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말이 전지훈련이지 선수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합류하게 되면 전지훈련에 참가한 23명 가운데 5~6명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향해, 6월의 독일을 향해 앞길을 운명을 함께 한 '아드보카트호'는 그렇게 출항했습니다.

두바이는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답게 유럽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맛볼 수 있는 도시더군요. 다만, 전

통의 맛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 이슬람 국가지만,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답게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특별한 종교적인 제약은 없다고 합니다. 대표팀이 UAE를 첫 평가전 상대로 잡은 것은 사실 의도적인 부분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중동의 기후가 6월의 독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첫 경기를 화끈하게 승리해서 기분 좋게 훈련을 시작하려 했던 거지요. 그런데, 패하고 말았죠. 게다가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구요. 기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에 선수들에게 물었죠.

"아까 그 승은 정말 넣을 수 있었는데, 몸이 생각만큼 안움직였어요." (박주영).

"저희도 실망이 큼니다. 국민들이 안타까워 할 텐데, 어땠죠." (조원희)

안심하기로 했습니다. 몸이 덜 풀린 탓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잠도 못자고 다시 사우디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굳었던 선수들 얼굴이 조금은 밝게 돌아와 있네요. 훈련 분위기도 두바이에서 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유로 2004 우승팀인 그리스와 무승부를 기록하더니 북유럽의 북빙 핀란드를 이기고, 사우디컵 우승을 했습니다. 포백 수비로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는데, 결과가 좋으니 누구보다 감독이 기뻐했죠. 그러나 기자들에게 사우디는 정말 텅텅하고 무려 나라였습니다.

취재에 집중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죠. 하루는 사우디 왕자가 선수들과 취재진들을 농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먹

는 음식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다만, 쓴 소주 한잔, 시원한 맥주 한모금을 갈구하는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지만요.

희망을 보기 시작한 '아드보카트호'가 홍콩에 닿을 내렸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벗어난 기자들에게 홍콩은 정말..., 홍콩이더군요. 저는 무엇보다 한국과 가까워졌다는 단순한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홍콩에서 대표팀은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오른 크로아티아를 상대했는데요. 크로아티아는 98년 프랑스월드컵 4강팀이기도 합니다. 2대 0으로 승리했죠. 경기 내용도 가장 좋았습니다.

한껏 고무된 대표팀. 하지만, 곧바로 덴마크에게 3대 1로 무너졌습니다. 아직 새로운 전술에 조직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저는 구룡반도의 끝에서 인파에 묻혀 홍콩섬 하늘을 수놓는 멋진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오붓한 구경을 보냈습니다. 윤원식 기자와 함께... 독일월드컵, 기대해도 되나요?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해오는 질문입니다. 무심한 사람들... 노총각장가보낼 생각이나 해 줄 것을, 독일월드컵, 기대해서도 좋습니다.

열심히 뛰고 연구하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원팀들. 애정 어린 마음인지, 애국심의 발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신분을 망각하고 골만 터지면 어느새 만세를 부르는 취재진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6월의 독일을 대~한~민~국~의 환호 속에 흠뻑 빠뜨릴 것을 기대하며...

이경재 (스포츠부)